

지역 매 아 리

김제지평선축제 예산확보 총력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김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하였으며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보장된다. 또한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미만 제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이 보험은 작년 10월부터 가입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신동진 미품 선정

김제시는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신동진과 미품 2품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장, 관계기관, RFC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김제시 재배여건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고려해 매입품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의 쌀 재고량 감축 방침에 따라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가 급년부터 매입제의 품종이 되면서 대체품종으로 선정할 새일미의 종자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가의 혼란과 불만이 있어왔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력 품종인 '신동진'과 보급종 공급품종을 희망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품'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품은 김제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아니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병해충 및 도복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어 종자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제시 관계자는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신동진 미품의 종자 확보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품종별 특성 및 재배 유의사항 등을 영농교육을 통해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226개 시·군·구 대표로 참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4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전국 226개 시군구 대표로 참석하는 등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도약한 김제지평선축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을 위한 자리로 정세균 국회의원 주최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 한국관광공사 민경석 본부장, 언론 기자, 축제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덕기 선임연구위원의 '문화관광축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 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축제담당 강기수 팀장의 축제를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현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등 김제시는 226개 시·군·구 대표로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226개 시·군·구 대표로 참



박준배 김제시장(사진 왼쪽)은 전국 226개 시군구 대표로 14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

석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성장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김제시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은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문화관광 자원화, 현장 수요 중심의 축제 전문 인력 육성,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세계적 축제 육성 등을 골자로 하여 2019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글로벌 육성축제인 지평선축제의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공건축물 8개소 지진안전성 획득

군청사·의회청사·솔테마박물관 등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 설치

완주군이 공공건축물 8개소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했다.

완주군은 공공건축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하고, 총 8개소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8개소는 완주군청사, 의회청사, 문예회관, 군청 중앙도서관, 삼례읍·봉동읍·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한민국솔테마박물관이다.

이들 시설은 지진발생시 실내구조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시행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주민들에게 안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설치할 시·군은 관할 도에 신청서류와 내진성능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도는 이를 검토해 확인서를 시·군에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주민들에게 안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대피장소와 이재민 수용 시설 활용 등 재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김제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및 위반 민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자체장애인연의시설김제시지원센터와

관내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기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차량, 주차기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

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14일 취약계층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2018 완주군 연합 봉사활동 효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으뜸 복지' 완주, 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관내 단체 연합 봉사활동 펼쳐... 문화공연·난방유 등 후원

완주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효사랑 큰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14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8 완주군 연합봉사활동 효사랑 큰잔치'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장애인복지회와 구이생활문화센터가 공동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완주군 내의 다양한 단체가 연합해 화합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최동원 완주군회의장, 완주군의원 및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으뜸합창단과 완주이리랑 예술

단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건강체합·재능나눔 부스운영,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장애인복지회, 완주군구이생활문화센터가 공동 후원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 저소득층 및 조손, 독거어르신 10세대에 약 1000만원의 난방유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성수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합해주고, 후원해주신 단체와 봉사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합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우량종묘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완료

완주군이 노후화된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량묘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완주군은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와 미래농업 기술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새롭게 보수, 교체하고 본격적인 우량묘 생산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첨단경량온실(2106㎡)과 유리온실(800㎡) 등의 노후화된 일부시설과 필름을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시스템 등도 정비해 우량종묘 안정생산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조지배양실은 첨단 LED 조명등과 중앙실현대를 교체해 무병 조지배양 묘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시설개선으로 우량묘의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농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올해도 농가들의 수요가 높은 무병 딸기묘(5만주) 180호, 씨감자(10톤) 83호, 주야마늘(30만구) 45호, 고구마, 생강 등 5품목에 대한 고품질 우량묘를 생산해 관내연구회 및 거점농가 등 지역 선도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량종묘 공급은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고, 지역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시설현대화를 통해 바 이러스 없는 무병 우량묘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